

#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 변천과정 및 구성 원리

송은영 · 이의주 · 이준희 · 고병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체질의학전공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The Origin, Change, and Composition of Soeumin's Bojungikgi-tang

Eun-Young Song, Eui-Ju Lee, Jun-Hee Lee, Byung-Hee Koh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1.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on of Soeumin's Bojungikgi-tang.

#### 2. Methods

- 1) Analyzed the context of the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soeumin's Bojungikgi-tang in related passages from 『Donguibogam (東醫寶鑑)』, 『Donguisusebowon·Chobongwon (東醫壽世保元·草本卷)』, 『Donguisusebowon·Gabobon (東醫壽世保元·甲午本)』, 『Donguisusebowon·Sinchukbon (東醫壽世保元·辛丑本)』, 『Dongmuyugo (東武遺稿)』
- 2)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tilization of Soeumin's Bojungikgi-tang in pre-existing manuscripts according to pathological pattern and more specifically at a pathological stage.
- 3) Analyzed the total primary effect of the herbs as a prescriptive category, as well as the herbal properties of each component.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Originally Dongwon's Bojungikgi-tang was prescribed as a stomach & spleen organ tonifying medicine so it was easily applied and established as a prescription appropriate for Soeumin constitutional types with a weaker spleen organ.
- 2) From Gabobon(甲午本), Soeumin's Bojungikgi-tang was modified, excluding Bupleurum falcatum(柴胡), Cimicifuga heracleifolia(升麻) and substituting Teucrium chamaedrys(藿香), Ophiopogon japonicus(蘇葉) which are herbs appropriate for the Soeumin constitutional type.
- 3) In the Gabobon(甲午本), the Gegi-tang which has yang raising properties is included in the Soeumin's Bojungikgi-tang. In Sinchukbon(辛丑本), the Gegi-tang of the Soeumin's Bojungikgi-tang in the Gabobon was excluded and the Gegi-tang mutated into Hwangigyjeji-tang.
- 4) In the Gabobon(甲午本), as the Soeumin's Bojungikgi-tang was prescribed for Soeumin disease regardless of favorable-unfavorable patterns and mild-severe patterns, the stage of the disease when to prescribe Soeumin's Bojungikgi-tang was not clarified.
- 5) As of the Sinchukbon(辛丑本) edition, as Soeumin's prescriptions have been obvious, the soeumin's Bojungikgi-tang was applied to Mang-yang disease with Hwangigyjeji-tang and Seungyangikki-tang.
- 6) As of the Sinchukbon(辛丑本) edition, the Soeumin's Bojungikgi-tang has been applied to patients having both exterior-heat Mang-yang disease and Greater-yin disease, at the same time.
- 7) As of the Sinchukbon(辛丑本) edition, finally, the Soeumin's Bojungikgi-tang formula has been established as gathering Qi and middle tonification with Panax ginseng(人參), Astragalus membranaceus(黃芪), keeping the spleen healthy with Arctactylodes japonica(白朮), keeping the spleen strong with Angelica acutiloba(當歸), rooting the spleen with Citrus reticulata(陳皮), raising Yang and middle jiao with Teucrium chamaedrys(藿香), Ophiopogon japonicus(蘇葉), middle tonification with Glycyrrhiza glabra(甘草灸), Zingiber officinale(生薑), Zizyphus jujuba(大棗).

**Key Words**: Soeumin Bojungikgi-tang. origin, change, composite principle

• 접수일 2012년 02월 09일; 심사일 2012년 02월 09일;  
승인일 2012년 03월 08일  
• 교신저자: 이준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80 Fax : +82-2-958-9234

E-mail : ssljh@daum.net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 I. 緒論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新定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 나온 처방 중의 하나로 少陰人 表病에 사용되어 온 처방이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김<sup>1</sup>이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李東垣 補中益氣湯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少陰人 병증을 개선하는 데 東垣 補中益氣湯보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더 알맞음을 밝힌 것이 있다. 또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관련된 실험연구에는 尹<sup>2</sup>이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소화관의 이완작용, 抗瀉下作用, 과다 위액분비 작용 유발에 대한 위액분비 억제효과, 혈압강화효과를 밝힌 것, 안<sup>3</sup> 등이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후세방 補中益氣湯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陽虛證에 대한 회복 효과가 있음을 밝힌 것과 朴<sup>4</sup> 등이 후세방 補中益氣湯과 少陰人 補中益氣湯 및 그 構成藥物群을 高血糖 白鼠에 적용했을 때 혈당강하 작용과 free radical에 대한 방어효과가 있음을 밝힌 논문 등이 있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東垣의 補中益氣湯의 비교 연구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少陰人 補中益氣湯 자체의 변천에 따른 고찰을 통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처방의 및 그를 통해 少陰人 病證에 대한 관점의 변천을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에 필자는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 제시되는 조문과 처방을 비교 연구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基源, 變遷, 構成에 대해 몇 가지 새로운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논문에 기재된 조문 및 조문 번호는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에서 편찬한 『四象體質科 臨床便覽』을

기준으로 하였다.

1. 기존 증치방을 바탕으로 하여 사상방이 출발한다는 개념 하에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처방을 살펴본다. 『東醫壽世保元』의 『宋元明三代醫家著術中少陰人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중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처방을 기초로 고찰한다.
2. 고찰순서는 서지학적 순서에 의한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草本卷』(이하 『草本卷』),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으로 각각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관련된 조문 및 처방을 비교 연구하며, 基源, 變遷, 構成原理에 대해 고찰한다.
3. 東武 藥性歌와 『東武遺稿(海東)』의 본초에 관한 효능을 참고하였다.

## III. 結果

### 1.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基源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基源은 『甲午本』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에서 볼 수 있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처방은 『李東垣書』중에서 나온 것으로 黃芪 一錢五分 甘草 炙 人參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로 구성되어 있고, 勞倦虛弱으로 몸에 열이 있고, 煩燥하고, 땀이 나며 권태로운데 사용한다고 하였다<sup>1)</sup>.

『東醫寶鑑』에서도 李濟馬가 언급한 『李東垣書』중의 補中益氣湯을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主治症에 대한 언급 이외에 柴胡, 升麻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脾胃가 부족한 증상에 반드시

1) 『甲午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 黃芪 一錢五分 炙甘草 炙 人參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 ○ 此方 出於 李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升麻와 柴胡를 쓰는 것은 脾胃 속의 滯기를 끌어서 陽道와 모든 경락으로 다니게 하여 陰陽의 氣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脾胃를 치료하는 약에 대부분 '升陽'이나 '補氣'라는 이름이 붙는다<sup>2)</sup>고 하여 補中益氣湯이 脾胃를 補하는 약임을 나타내고 있다.

## 2.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變遷

### 1) 『草本卷』

『草本卷』에서 補中益氣湯의 柴胡, 升麻, 大承氣湯에서의 大黃, 芒硝, 白虎湯의 粳米, 益元散의 生甘草灸는 그 쓰임이 변통에 의미가 있어 고방 자체로는 불가하며, 四君子湯의 茯苓, 四物湯의 地黃, 六味地黃湯의 山藥은 主藥의 性味를 善할 수 있어 古方과 新方이 같지 않다<sup>3)</sup>고 하여 補中益氣湯을 고방대로 쓰지 않고 柴胡 升麻를 제외시켜 사용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內傷頭痛 眩暈 憎寒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에 사용 한다<sup>4)</sup>고 하여 『東醫寶鑑』 勞倦傷治法 중 나와 있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이 되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의 主治症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草本卷』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黃芪의 양을 2배로 하였고, 白朮의 양을 0.3錢, 陳皮의 양을 0.2錢 줄이고 柴胡, 升麻, 生薑, 大棗를 처방에서 제외시켜 처방구성을 黃芪蜜炙 三錢 人蔘 灸甘草灸 各一錢 白朮 當歸 各七分 陳皮 五分으로 하였다.

### 2) 『甲午本』

『少陰人 外感膂病論』에서 身熱, 自汗이 있으면서 惡寒하지 않고 오히려 惡熱하면서 소변이 잘

나오는 자는 脾約의 病으로 그 병은 重, 險證이고, 만약 그 병이 열이 나면서 汗이 많이 나고 惡寒하면 危症인데, 이러한 증상에 汗이 나면서 소변이 잘 나오는 자에게는 補中益氣湯, 升陽八物湯, 回陽大補湯, 健脾壯胃湯을 쓰고, 열이 나면서 汗이 많이 나는 자는 人蔘黃芪附子湯,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을 사용 한다<sup>5)</sup>고 하였고, 脾約의 原因을 裏熱을 유지하는 힘이 약화되어서라고 보았다.<sup>6)</sup>

『少陰人 外感膂病論』의 다른 부분에서는 身熱이 있으며 汗이 나지 않고, 惡寒하지 않고 오히려 惡熱하며 배가 그득하고 대변이 딱딱하며 狂症이 있는 자는 胃家實病이며, 그 병은 重, 險證인데, 만약 그 병에 더하여 汗을 흘리며 汗열적인 열감을 보이고 약간 숨을 헐떡이면 이는 危證인데, 이런 증상에서 대변을 보기 어려운 자가 있다면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을 사용하고, 汗을 흘리며 汗열적인 열감을 보이고 약간 숨을 헐떡이는 자가 있다면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健脾壯胃湯을 사용 한다고 하였다.<sup>7)</sup>

또, 『甲午本』의 『少陰人 外感膂病論』중에서 少陰人 太陽病에 惡寒證이 있고, 배가 딱딱하게 그득한 자는 巴豆 全粒을 사용하고, 惡寒證이 없고 배가 딱딱하고 그득하다면 巴豆 半粒을 사용하고 이어서 補中益氣湯을 복용하는데 하루에 3-4첩 먹고 또 다음날 연이어 먹는다<sup>8)</sup>고 하였다.

『甲午本』의 『少陰人 膂胃病篇尾泛論』에서 陽

2) 『東醫寶鑑』『內傷篇』의 勞倦傷 치료법 중 脾胃不足之證須用升麻柴胡引脾胃中清氣行於陽道及諸經生發陰陽之氣故凡治脾胃藥多以升陽補氣名之者,此也

3) 『草本卷』11-5『第六統』 補中益氣湯之升麻柴胡 大小承氣湯之大黃芒硝 白虎湯之粳米 益元散之生甘草灸 制用有得變通之宜 古方自不可 君子之茯苓 四物之地黃 六味之山藥 贅味及害主藥之性 古方不如新方

4) 『草本卷』13-27『少陰人 藥方』 補中益氣湯 治內傷頭痛 眩暈 憎寒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후략)

5) 『甲午本』6-21『少陰人 外感膂病論』今考更定 身熱汗自出不惡寒反惡熱小便利者 謂之脾約病而 其病爲重險證. 若其病 又發熱汗多而惡寒則 危證也. 此證 自汗出小便利者 當用 補中益氣湯 升陽八物湯 回陽大補湯 健脾壯胃湯. (후략)

6) 『甲午本』6-20『少陰人 外感膂病論』脾約病形證 (중략) 若其病垂危則 發熱汗多而惡寒也. 發熱汗多而惡寒者 裏熱撐支之勢 已窮故也.

7) 『甲午本』6-27『少陰人 外感膂病論』今考更定 身熱汗自出不惡寒反惡熱腹滿大便硬發狂者 謂之胃家實病而其病爲重險證. 若其病 又澀然微汗出潮熱微喘則 危證也. 此證 不更衣內實大便難者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 澀然微汗出潮熱微喘者 當用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健脾壯胃湯.(후략)

8) 『甲午本』6-42『少陰人 外感膂病論』少陰人太陽病 有惡寒證而腹中硬滿者 用巴豆全粒. 惡寒證而腹中硬滿者 用巴豆半粒 因以補中益氣湯壓之 三四服又連日服.

Table 1. Compositons of Original and Changed Prescriptions and Indications of Soeumin Bojungikgi-tang

出處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	草本卷	甲午 舊本	辛丑本		東武遺稿 藥性歌		
處方名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黃芪桂枝湯			
構成藥物	黃芪 1.5	黃芪 3	黃芪 3	黃芪 3	黃芪 2	黃芪 2	黃芪 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補脾和脾	
	人蔘 1	人蔘 1	人蔘 2	人蔘 3	人蔘 2		人蔘 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營養衛	
					白何首烏 1	白何首烏 1	何首烏 甘 添精種子 黑髮悅顏 長生不死	
	甘草灸 1	甘草灸 1	甘草灸 1	甘草灸 1	甘草灸 1	甘草灸 1	固脾立脾 健脾直脾	
	白朮 1	白朮 0.7	白朮 1	白朮 1			白朮 甘溫 健脾強胃 止瀉除濕 兼散痰痞	
	當歸 0.7	當歸 0.7	當歸 1	當歸 1	當歸 1	當歸 1	壯脾而有內守之功 生血補心 扶虛益損 逐瘀生新	
	陳皮 0.7	陳皮 0.5	陳皮 1	陳皮 1			錯綜脾元 參伍勻調 陳皮 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	
	柴胡 0.3						柴胡 味苦 能瀉肝火 寒熱往來 瘧疾均可	
	升麻 0.3						升麻 性寒 清胃解毒 升提下陷 牙疼可逐	
			藿香 0.3 or 0.5	藿香 0.3 or 0.5				安氣 霍香 辛溫 能止嘔吐 發散風寒 霍亂爲主
			蘇葉 0.3 or 0.5	蘇葉 0.3 or 0.5				解脾之表邪 紫蘇 味辛 風寒發表 梗下諸氣 消除脹滿
			桂枝 2		桂枝 2	桂枝 3	桂枝 3	桂枝 少便 橫行手臂 止汗舒筋 治手足痺
					官桂 1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白芍藥 1		白芍藥 2	白芍藥 2	白芍 酸寒 能收能補 瀉痢腹痛 虛寒勿用	
			川芎 1					壯脾而有外攘之勢 川芎 性溫 能止頭疼 養新生血 開鬱上行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3片	生薑 性溫 通暢神明 痰嗽嘔吐 開胃極靈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2枚	大棗 味甘 調和百藥 益氣養脾 中滿休噦		
主治證	治 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治 內傷頭痛 眩暈 憎寒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	治 脾約 胃家實	治 亡陽中證 (원문에는 초 증으로 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亡陽中證으로 봄)				

明, 太陽의 危證에 이른 자는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으로 그 병을 풀 수 있고, 少陰病과 太陰病의 위급한 증상은 獨蔘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이어야 풀 수 있다<sup>9)</sup>고 고 하였다.

9) 『甲午本』8-9「少陰人 外感膈病論」陽明 太陽之危者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 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 又連日服則 難解也. 少陰 太陰之危者 獨蔘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可以解之

『甲午本』의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은 『草本卷』에서 처럼 黃芪를 3錢으로 유지하면서 『草本卷』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에서 1錢이었던 人蔘의 양을 2배로 증량하여 2錢을 사용하였고, 기원처방에서 1錢이었다가 0.3錢 줄여 구성된 『草本卷』의 白朮은 다시 기원 처방에서처럼 1錢으로 하였고, 當歸의 양은 기원처방과 『草本卷』에서 0.7錢 사용하던 것을 0.3

錢 늘려 1錢으로 하고, 川芎 1錢, 白芍藥 1錢, 桂枝 2錢을 추가하였고, 기원처방에서 보이던 生薑, 大棗를 『草本卷』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生薑 3片, 大棗 2枚를 처방에 포함시켜 구성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甲午本』의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에서 기원방 및 그의 변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黃芪를 三錢으로 하고 升麻, 柴胡를 빼고, 藿香, 蘇葉을 처방에 포함시킬 것을 나타내고<sup>11)</sup> 있어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부터 藿香과 蘇葉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 3) 『辛丑本』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에서 張仲景이 말한 太陽傷風證에 發熱惡寒 한다는 것은 곧 少陰人의 腎에 熱을 받아 表部에 熱이 나는 병인데 이 증후에 發熱하며 惡寒이 나고 땀이 없으면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같은 것을 쓰고, 惡寒發熱이 있으면서 땀이 나면 亡陽證 初證으로 절대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고, 먼저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을 3일간 계속 먹다가 그래도 병이 풀리지 않으면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을 써야한다<sup>12)</sup>고 하였다.

『甲午本』 8-9 조문의 補中益氣湯의 활용을 『辛丑本』 8-9 조문에서 그대로 신고 있다.<sup>13)</sup>

10) 『甲午本』 『新定少陰人病應用要藥二十二方』 ○ 補中益氣湯 黃芪 三錢 桂枝 人蔘 各二錢 白芍藥 炙甘草 當歸 白朮 川芎 陳皮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11) 『甲午本』 『宋元明三代醫家著述中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十三方巴豆藥六方』 ○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五分 炙甘草 人蔘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 此方 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 今考更定 此方 黃芪 當用 三錢而 當去升麻柴胡 當用藿香蘇葉.

12) 『辛丑本』 6-5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發熱惡寒者 卽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汗不止 病不愈則 當用 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13) 『辛丑本』 8-9 『少陰人 泛論』 陽明太陽之危者 獨參八物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에서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기원방인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sup>14)</sup>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에서 나온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는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같이 黃芪를 3錢, 甘草 灸

1錢, 白朮 1錢, 當歸 1錢, 陳皮 1錢, 生薑, 大棗를 사용하였으나 人蔘을 1錢 늘려 3錢을 사용하였고, 『草本卷』과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와 같이 기원방에서 보이던 升麻, 柴胡가 빠지게 되고, 『甲午本』에서 새로 추가되었던 桂枝, 白芍藥, 川芎이 빠지고, 藿香, 蘇葉은 『甲午本』에서처럼 각각 0.3錢 또는 0.5錢 추가하여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sup>15)</sup>

## IV. 考察

### 1. 少陰人 補中益氣湯 기원에 관한 고찰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李東垣 補中益氣湯과 柴胡와 升麻에 대한 처방 포함 여부가 다른데, 李東垣 補中益氣湯의 경우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청기를 이끌어 脾胃를 보하는 것으로 보아 처방구성에 포함시켰고,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는 少陰人만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만들기 위해 東武의 관점에서 보는 脾胃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柴胡와 升麻를 처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東武

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 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 而又連日服則難解也 少陰太陰之危者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可以解之

14) 『辛丑本』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五分 甘草 炙 人蔘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薑 三片 棗 二枚 ○ 此方 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 今考更定 此方 黃芪 當用 三錢 而當去 升麻 柴胡 當用 藿香 蘇葉

15) 『辛丑本』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補中益氣湯 人蔘 黃芪 各三錢 甘草 炙 白朮 當歸 陳皮 各一錢 藿香 蘇葉 各三分 或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遺稿』의 藥性歌에서 升麻는 性寒 清胃解毒 升提 下陷 牙疼可逐이라 하여 升麻는 성질이 寒한 것으로 溫暖之氣가 保命之主인 少陰人에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柴胡는 味苦 能瀉肝火 寒熱 往來 瘡疾均可라고 하여 柴胡의 主治證이 주로 少陽人의 병증에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少陰人 약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서지학적으로 東武의 가장 오래된 서적인 『草本卷』 및 이후 『甲午本』, 『辛丑本』에 이르기까지 東武서적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에서는 柴胡와 升麻가 빠지게 된다.

2. 少陰人 補中益氣湯 변천에 관한 고찰

1) 『草本卷』

앞서 살펴본 기원처방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 『草本卷』에 나타난 少陰人 補中益氣湯으로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 것은 黃芪의 양을 두 배로 하여 처방의 방의를 益氣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黃芪의 藥性歌<sup>16)</sup> 중에서 黃芪는 氣虛 한데는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기본적으로 益氣 작용이 있다는 것은 『草本卷』에서 제시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主治證이 氣虛證에 쓰이는 李東垣 補中益氣湯의 主治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白朮, 陳皮의 양을 줄이고, 生薑, 大棗를 처방에서 제외시켜 위의 脾에 작용 하는 네 가지 약물을 줄인 것은 少陰人 補中益氣湯 처방의 補脾 작용의 비중을 좀 더 줄였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白朮, 陳皮의 줄인 양이 아주 미미하고, 生薑, 大棗가 이후 『甲午本』, 『辛丑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이르기까지 다시 쓰이게 되므로 白朮, 陳皮, 生薑, 大棗의 변화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성약물에 대한 『東武遺稿』의 藥性歌를 살펴보면 白朮<sup>17)</sup>은 健脾直脾 하며, 陳皮<sup>18)</sup>은 和脾한다고 하였고, 當歸<sup>19)</sup>는 壯脾한다고 하였으며, 甘草灸<sup>20)</sup>는 固脾立脾 하였고, 모두 人蔘, 黃芪의 益氣 작용을 도와주는 약물이 된다.

그리하여 『草本卷』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성은 基源方에서 少陰人에게 맞지 않은 柴胡, 升麻를 제외시키고, 人蔘과 黃芪로 益氣시키며, 白朮, 當歸, 陳皮, 甘草灸로 補脾시키는 처방이 된다.

『草本卷』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한 구성은 다음 figure1.에 나타내었다.

補脾-益氣	健脾	錯綜脾元
人蔘 黃芪	白朮	陳皮
	壯脾	固脾
	當歸	甘草灸

fig 1. Composite principle of SoeuminBojungiki-tang(草本卷)

2) 『甲午本』

『甲午本』에 나타난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나타난 少陰人 表病篇인 『少陰人 外感瘧病論』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外感瘧病’ 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少陰人 表病을 크게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하였고, 太陽病의 주요 병리기전은 少陰人의 表의 標에 해

16) 『東武遺稿·海東』『上篇』1)『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1-1 脾藥 黃芪 性溫 收汗固表 托瘡生肌 氣虛莫少

17) 『東武遺稿·海東』『上篇』1)『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1-1 脾藥 白朮 甘溫 健脾強胃 止瀉除濕 兼毆痰痞 ○白朮 健脾直脾

18) 『東武遺稿·海東』『上篇』1)『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1-1 脾藥 陳皮 甘溫 順氣寬膈 留白和脾 去白消痰 ○陳皮 錯綜脾元 參伍勻調

19) 『東武遺稿·海東』『上篇』1)『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1-1 脾藥 當歸 性溫 生血補心 扶虛益損 逐瘀生新 ○當歸 壯脾而有內守之功

20) 『東武遺稿·海東』『上篇』1)『東武先師四象藥性管驗古歌』1-1 脾藥 甘草灸 甘溫 調和諸藥 灸則溫中 生則瀉火 ○灸甘草灸 固脾立脾

당하는 膀胱表局의 外禦之陽이 不足한 것으로 보았으며, 陽明病의 주요 병리기전은 少陰人의 表의 本에 해당하는 膈膜裏局의 內守之陽이 不足한 것으로 보았다. 『甲午本』에서는 少陰人의 ‘外感膈病’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로 ‘益氣而升陽’을 제시하였다.<sup>5)</sup>

『甲午本』의 少陰人 表病의 주요 병증 모델은 仲景의 병증모델에서 따온 太陽病 胃家實證과 陽明病 脾約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甲午本』에서 仲景의 陽明病에 모두 사용하였고, 胃家實과 脾約에 사용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 되어있는데, 앞서 나타난 것처럼 胃家實과 脾約은 모두 少陰人 表病<sup>21)</sup>에 속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胃家實은 陽明病이며 鬱狂證 中證<sup>22)</sup>에 속하고, 脾約은 發熱 및 陽氣손상이 심할 경우 나타나는 汗出을 특징으로 하는데, 亡陽證 역시 發熱, 汗出이 亡陽 初中末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脾約은 亡陽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胃家實과 脾約 모두 앞서 말한 表病의 병리기전을 가지게 되며, 胃家實과 脾約 모두 表病의 치료법으로 제시한 升陽 益氣의 처방에 따라 치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의 주 효능도 升陽 益氣의 작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升陽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한<sup>6)</sup>의 논문에서 升陽에서의 陽氣에 대한 개념을 上升之氣로 보고, 인체 내에서는 熱氣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脾約의 병리기전은 裏熱을 유지하는 힘이 약화되어 陽氣 손상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陽氣와 熱氣의 개념이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脾約의 치료법인 升陽 益氣는 熱氣 및 율추된 陽氣를 끌어올리며 기운을 더하여 그의 추동

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의 처방인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효능 역시 脾約의 치료 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胃家實의 병리기전은 寒邪를 떨쳐내는 힘이 약한 것으로 보고<sup>23)</sup> 寒邪를 떨쳐낼 수 있는 陽氣를 상승시키며 기운을 더하여 陽氣상승의 힘을 더하여 주는 益氣의 작용이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이는 胃家實의 치료법이자 補中益氣湯의 효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胃家實과 脾約은 각각 鬱狂證 및 亡陽證에 속하고, 鬱狂證은 脾元이 손상되지 않은 順證이 되고 脾元이 손상된 亡陽證은 逆證이 된다<sup>7)</sup>. 이처럼 胃家實과 脾約은 각각 병증단계에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두 가지 병증단계, 즉 順, 逆證을 넘나들며 두 가지 병증에 모두 쓰이고 있어, 그 쓰임이 두루뭉술하고 분명하지 않다.

또한 脾約病 중의 쓰임에서도 땀이 나며 소변이 잘 나오는 자와 열이 나며 땀이 많이 나는 자로 나뉘어, 그 병증의 정도가 다른 두 가지 경우에도 모두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언급되어 쓰임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甲午本』에 나타났고, 『辛丑本』에도 실려 있는 少陰人 泛論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太陽之危證엔 獨蓼八物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太陽病 胃家實의 末證에 獨蓼八物湯을 적용한다는 것과 통하고, 陽明病危證에 補中益氣湯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脾約 末證에 적용한다는 것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서 나타난 것처럼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활용 단계가 분명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少陰人 泛論의 내용처럼 주로 陽氣 손상이 좀 더 위중한 증에 적용되는 것에 비중을 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少陰人 太陰證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腹痛이 나타날 때 巴豆에 이어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쓰인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少陰人 補中益氣

21) 『甲午本』6-31 『少陰人 外感膈病論』 胃家實 脾約二病如陰證之太陰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22) 『甲午本』6-31 『少陰人 外感膈病論』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23) 『甲午本』6-27 『少陰人 外感膈病論』 胃家實病形證 (중략) 若其病尤險則 澌然微汗出潮熱也. 澌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渴故也.

湯이 太陰證 素證을 가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少陰人 裏病 처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陳皮와 白朮이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草本卷』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으로의 변화 중 人參의 양을 2배 늘린 것은 補脾작용과 함께 黃芪와 더불어 나타내는 益氣 작용을 좀 더 염두에 둔 것이며, 健脾直脾의 효능이 있는 白朮과 壯脾의 효능이 있는 當歸의 양을 약간 늘린 것과 生薑과 大棗를 다시 처방에 구성한 것은 少陰人의 偏小之臟인 脾元을 補益시키는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에 없었던 桂枝, 白芍藥, 川芎을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처음으로 추가함으로써 桂枝湯 구성처방인 桂枝, 白芍藥, 生薑, 甘草, 大棗가 나타나게 된다.

桂枝湯은 少陰人 表病에서 太陽病이든 陽明病이든 관계없이 升陽시키기 위해 사용한 主 처방이다.

桂枝湯에서 主藥이 되는 桂枝는 辛溫한 性味로 陽氣를 유도하여 虛寒性 鬱滯病證을 풀어주는 약재가 되기 때문에 腎大脾小로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고 울결된 병증인 鬱狂證 및 亡陽證의 치료 예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白芍藥<sup>24)</sup>은 收斂脾元의 약이고, 川芎<sup>25)</sup>은 當歸와 함께 少陰人 偏小之臟에 작용하여 壯脾시키는 약이 된다.

다음 桂枝, 白芍藥, 川芎의 추가와 더불어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의 주요 변화인 藿香, 蘇葉의 추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東武遺稿』의 藥性歌에서 藿香의 性味 및 主治는 安氣, 辛溫 能止嘔吐 發散風寒 藿亂爲主<sup>26)</sup>이라 하였다. 藿香은 辛味 및 芳香性으로 利

氣시켜 울체된 陽氣를 풀어주며, 脾藥에 속하여 脾氣를 안정시키며, 少陰人의 虛寒한 脾胃를 溫하게 할 수 있다.

『東武遺稿』의 藥性歌에서 蘇葉은 解脾之表邪, 味辛 風寒發表 梗下諸氣 消除脹滿<sup>27)</sup>의 작용을 하는 약물로 기록되어 藿香과 마찬가지로 辛味 및 芳香性으로 氣를 소통시켜 울체된 陽氣를 풀어 내며, 解脾시키는 약이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약물은 모두 少陰人 偏小之臟인 脾에 작용하며, 藿香의 止嘔吐 및 蘇葉의 除脹滿 등의 효능으로 유추해 볼 때 少陰人 太陰證에 적용할 수 있고, 發散 風寒 및 解表의 효능이 있어, 少陰人 表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性溫하여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溫暖之氣를 더하며 陽氣를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여러 적응증과 통하는 약물이 된다. 그리하여 기원처방에서 구성되었던 柴胡, 升麻는 少陰人에게 맞지 않다고 보아 빠지게 되고,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부터 藿香 및 蘇葉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白朮, 當歸, 陳皮, 甘草灸는 기원처방에서부터 이어져온 약물로 모두 少陰人 偏小之臟인 脾에 작용하는 약재이다. 그 중에서도 白朮, 陳皮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少陰人 裏病 처방에서 주로 나타난 약물로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現證으로 表熱病 亡陽證이 있을 뿐만 아니라 太陰證 素證까지 가질 때 적용되는 처방이 됨을 알 수 있다.

『甲午本』의 補中益氣湯은 처방에 대한 의미를 많이 고민한 시기의 처방으로 원방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少陰人 처방에서 陽氣를 더하기 위해 表病 처방에 가장 많이 쓰이는 桂枝湯의 의미를 補中益氣湯에 넣었고, 表寒邪를 떨쳐내고, 울체된 陽氣를 풀어내며, 脾胃에 작용하고 太陰證에 적용할

24) 『東武遺稿·海東』「上篇」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1-1 脾藥 白芍 酸寒 能收能補 瀉痢腹痛 虛寒勿用 ○白芍藥 收斂脾元

25) 『東武遺稿·海東』「上篇」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1-1 脾藥 川芎 性溫 能止頭疼 養新生血 開鬱上行 ○川芎 壯脾而有外攘之勢

26) 『東武遺稿·海東』「上篇」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1-1 脾藥 藿香 辛溫 能止嘔吐 發散風寒 藿亂爲主 ○藿香安氣

27) 『東武遺稿·海東』「上篇」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1-1 脾藥 紫蘇 味辛 風寒發表 梗下諸氣 消除脹滿 ○紫蘇葉 解脾之表邪



수 있어 表熱病 亡陽證의 現證과 太陰證 素證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藿香, 蘇葉을 더한 처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甲午本』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李東垣 補中益氣湯에 桂枝湯의 의미를 넣은 처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甲午本』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성 원리에 대한 그림은 figure 2.에서 볼 수 있다.

補脾-益氣	健脾	錯綜脾元	升陽	
人蔘 黃芪	白朮	陳皮	桂枝 白芍藥 甘草 灸薑 三棗 二	蘇葉 藿香
	壯脾			
	川芎 當歸		<桂枝湯>	.

fig. 2. Compositive principle of Soeumin Bojungikgi-tang(甲午本)

4) 『辛丑本』

『辛丑本』에서도 『甲午本』과 같이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少陰人 表病篇에 나와 『辛丑本』의 表病篇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甲午本』에서는 少陰人 表病을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한 것이 주 분류였었지만, 『辛丑本』에서는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분류한 것이 주 분류가 된다.

『辛丑本』에서 少陰人 表病의 대표적 병리기전은 太陽病 下焦蓄血證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脾局陽氣가 寒邪에 엄습당

해 놀리게 되고, 腎局陽氣는 寒邪에 밀려나 바로 올라가 脾局과 연결되지 못하고 膀胱에 울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sup>1)</sup>.

그리고 表病의 치료방법은 『甲午本』과 같이 울축된 陽氣를 끌어올리고 그의 추동력인 기를 더하여 주는 ‘益氣而升陽’을 치법으로 제시하였다<sup>5)</sup>.

『辛丑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원문에서 表病 중 亡陽初證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등장하는데<sup>28)</sup>,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비록 太陽病條에서 설명이 되지만 앞뒤 맥락을 봐서 初證은 아니고, 中證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교과서 분류도 마찬가지로 된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나타난 『甲午本』의 少陰人 表病의 病證 분류 중 太陽病은 병증의 흐름상 『辛丑本』의 亡陽初證으로 이어지고 陽明病은 병증의 흐름상 亡陽 中, 末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게 되어, 이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甲午本』에서 주로 陽明病 및 陽明之危證에 적용하였던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辛丑本』에서 亡陽中證으로 배속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본다. 이는 교과서 및 이전 少陰人 補中益氣湯 관련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바이다.<sup>29)</sup>

『辛丑本』원문에서는 亡陽初證에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黃芪桂枝湯 모두가 언급되고 있지만<sup>30)</sup>, 앞서 언급한 병증의 계보 상 太陽病 계보를 이어 少陰人 太陽病 증상에 주로 적용했던 桂枝湯이 포함된 黃芪桂枝湯만이 亡陽初證에 맞는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黃芪桂枝湯은 『辛丑本』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桂枝 三錢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當

28) 『辛丑本』6-5「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전략)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후략)

29) 김정희 등. 소음인 병증 및 처방에 나타난 계지탕의 변용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1(1):201-220.(1999) 중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亡陽中證에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30) 『辛丑本』6-5「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전략)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후략)

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로 구성된 처방이다.<sup>31)</sup> 이는 桂枝湯에서 黃芪, 白何首烏, 當歸가 추가된 처방으로 太陽傷風證의 대표적 증상인 身熱, 惡寒이 있을 때 升陽시키는 桂枝湯의 의미에 益氣 및 補脾 의미의 黃芪, 人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白何首烏<sup>9)</sup>, 壯脾의 當歸가 더해진 처방으로 太陽病 증상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추어진 처방이 된다. 그리하여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 안에 있던 桂枝湯이 빠져 나와 『辛丑本』에서 黃芪桂枝湯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升陽益氣湯 역시 黃芪桂枝湯과 마찬가지로 『辛丑本』에 처음 등장하는 처방으로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로 구성<sup>32)</sup>되어 黃芪桂枝湯에 補脾 益氣의 人蔘이 가세한 처방이 되며 太陽病 치료 의미에 人蔘의 補脾 및 益氣의 의미를 더한 처방으로 『甲午本』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유사한 모습의 처방이 된다. 그리하여 升陽益氣湯은 亡陽中證에 배속할 수 있을 것이다.

亡陽證의 기본증상은 身熱 汗出에 있는데, 身熱을 해결하는데 있어 黃芪桂枝湯 중의 桂枝芍藥類의 적용 단계는 解鬱 疏散시켜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단계이고 升陽益氣湯은 人蔘黃芪類가 포함되어 적극적 升陽益氣를 통해 해결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辛丑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 桂枝, 白芍藥, 川芎이 빠져게 되어 太陽病 치료 및 升陽의 桂枝湯 의미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補脾, 益氣의 의미 및 太陰證 素證에 대한 치료 의미가 더욱 증점이 되고, 藿香과 蘇葉으로 升陽의 의미가 일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升陽益氣湯과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분은 적응증에의 太陰證 素證의 有無를 들 수 있는데,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는 白朮, 陳皮가 포함되어 太陰證에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升陽益氣湯은 처방구성 상 太陰證에 적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주요 차별점은 人蔘 黃芪가 더 많은 양이 포함된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升陽益氣湯보다 陽氣손상이 더욱 심화된 증상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少陰人 補中益氣湯 중의 白朮 陳皮 藿香 蘇葉은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주 치료병증인 亡陽證 現證에 太陰證 素證까지 치료하는 처방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升陽益氣湯은 太陰證 素證을 겨냥한 의미는 찾아 볼 수가 없다.

升陽益氣湯은 黃芪桂枝湯과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중간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亡陽證개념과 初中末 구분정신이 확립이 된 『辛丑本』에서부터 亡陽初證의 黃芪桂枝湯, 中證의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으로 각각의 단계에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는 처방들이 확립되게 된 것이다.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辛丑本』의 다른 表病 처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桂枝湯계열의 溫暖之劑가 빠져 있으며 鬱狂證의 처방인 藿香正氣散 및 香砂養胃湯처럼 和脾만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닌 人蔘, 黃芪를 主藥으로 해서 益氣 및 補脾 작용을 위주로 하여 桂枝湯계열 구성약물에 의한 升陽이 아닌 藿香, 蘇葉을 통한 升陽작용을 가진 특수한 처방이 된다.

李濟馬는 기원처방이 되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의 補脾 및 益氣의 의미가 少陰人에게 적합하다고 보고 그 처방을 기원처방으로 하였고, 少陰人 病證에 대한 관점을 적립해 나감에 따라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처방에도 조금씩의 변화를 가하여 『辛丑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이르러서는 益氣 및 補脾의 작용을 기원처방에서 처럼 강조하고, 少陰人에 맞지 않은 柴胡, 升麻를 藿香, 蘇葉으로 대체하여 升陽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補脾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1) 『辛丑本』『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黃芪桂枝湯 桂枝 三錢 白芍藥 黃芪 各二錢 白何首烏 當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32) 『辛丑本』『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升陽益氣湯 人蔘 桂枝 黃芪 白芍藥 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甘草灸 各一錢 薑 三片 棗 二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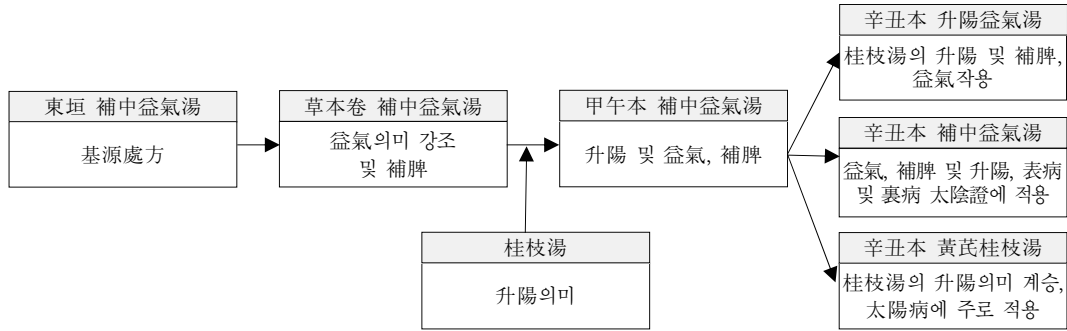


Fig.4. The origin and changes of Soumin Bojungikgi-tang

補脾-益氣	健脾	錯綜脾元	升陽
人蔘 黃芪	白朮  壯脾  當歸	陳皮  固脾  甘草灸 薑三 棗二	藿香 蘇葉

fig. 3. Compositive principle of Soumin Bojungikgi-tang(辛丑本)

『辛丑本』에서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figure 3.에서 나타내었다.

5) 연구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그 논리적 근거가 원문에 근거로 하였지만, 논지에 있어 원문과 조금 다르게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제마 선생님의 논리의 경향성과 흐름의 파악에 의하여 보다 정확한 동무의 정신을 파악한 것으로 사상의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제마 선생님의 여러 서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제마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이제마 선생님의 글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다 정확한 해석과 관련된

의견들이 더 활발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V. 結論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基源과 變遷, 그리고 構成 原理를 알아보기 위하여, 『東武遺稿』의 藥性歌,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처방 및 병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 『李胡東垣書』 중의 脾胃를 補益하여 勞倦傷을 치료하는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을 少陰人의 偏小之臟인 脾胃를 補益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여 少陰人 처방의 基源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 東垣이 脾胃를 보하는 약물로 보았던 升麻와 柴胡를 東武는 少陰人 처방에 적합하지 않은 약물로 보고, 東武의 관점에서 脾胃를 보하는 효능이 있는데다가, 表熱病 亡陽證 및 太陰證 素證에 적용 가능하여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의미에 더욱 적합한 약물이 되는 藿香, 蘇葉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 『甲午本』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방의는 少陰人 처방에서 陽氣를 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桂枝湯의 升陽의미를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넣은 것에, 白朮, 陳皮와 함께 太陰證 素證에

적용될 수 있는 藿香, 蘇葉을 더한 처방으로 李東垣 補中益氣湯에 桂枝湯을 더한 처방이 된다.

4. 『甲午本』에서는 順逆, 輕重을 넘나들며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쓰이고 있어 病證에 대한 구분과 이에 대한 少陰人 補中益氣湯의 위치가 명확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 『辛丑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서는 川芎, 白芍藥, 桂枝를 제외시켜 桂枝湯의 의미를 제외시켰고, 『甲午本』의 少陰人 補中益氣湯에 구성하였던 桂枝湯의 의미가 빠져나와 『辛丑本』의 黃芪桂枝湯 처방으로 따로 만들게 되었다.
6.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처방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辛丑本』에서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黃芪桂枝湯과 升陽益氣湯과 함께 亡陽證을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7. 少陰人 補中益氣湯은 人蔘, 黃芪를 통하여 益氣, 補脾시키며, 白朮로 健脾, 當歸로 壯脾시키며, 陳皮로 錯綜脾元하며, 藿香, 蘇葉으로 升陽 및 補脾胃하며 灸甘草灸, 生薑, 大棗로 補脾하여, 太陰證 素證이 있으면서, 亡陽證이 있는 경우를 목표로 한 처방이 된다.

of Soum-In Bojungikit'ang and Dong-Won Bojungikit'ang on Yang-Insufficient Syndrome Induced by Hydrocortisone acetate. J Sasang Constitut Med. 1995;7(2): 213-225.(Korean)

4. Park SD, Seo KJ, Park WH. Effects of Bojungikgitang, Soeumin Bojungikgitang and its component groups on Antioxidant Activities in alloxan. Kor. J. Herbology. 2001;16(2):113-126.(Korean)
5. Lim JN, Lee EJ, Koh BH, Song IB. Comparison with 'Gu-Bon' and 'In-bon' on Symptom of Soeumin's Disease and Soyangin's Disease.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62-73.(Korean)
6. Han KS, Park SS. The Conception of YangQi and YinQi at the Discourse on the Soyangin and Soeumin Disease in 『Dongyi Suse Bowo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11-21.(Korean)
7. Song EY, Park BJ, Song AN, Lee EJ, Koh BH, Lee JH. The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Soeumin Symptomatology and the Standardized Symptom.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4):1-12.(Korean)
8. Joo JC, Kim KY. A Study on the Disease and Pharmacy of the Soumin's Sinsoo-yul-phoyul-Byung theory. J Sasang Constitut Med. 1997;9(2):67-94.(Korean)
9. Shin HS, Lee JH, Koh BH, Lee EJ. The Origin, Changes and Compositive Principles of Baekhaolee-ju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2):164-173.(Korean)

## 參考文獻

1. Kim IW, Kim KG. A Comparative Study on Soumin Bojungyigitang and Bojungyigitan in the View of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1996;8(2):69-94.(Korean)
2. Youn SH, Ryu BH, Park DW, Jang IK, Ryu KW. Experimental Studies on the Efficacy of Soeuminbojungikgitang. J Sasang Constitut Med. 1987;8(2):33-35.(Korean)
3. An KM, KohBH, Song IB. The experimental study